

언제나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후회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삶은 매 순간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결코 늦은 때는 없습니다.

결과를 중시한다면 인생에서 느리고 빠른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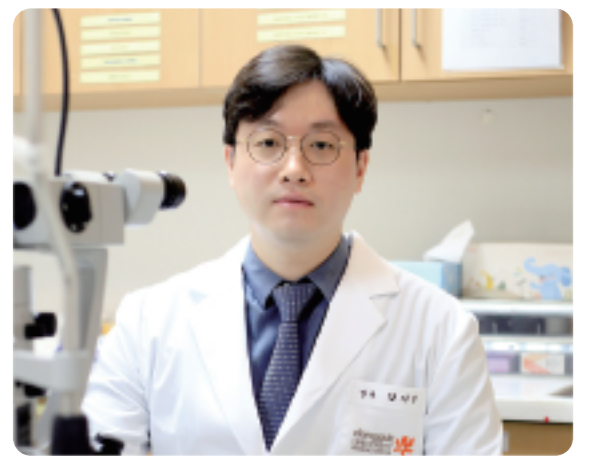
그러나 과정을 중시한다면 인생에서 느리고 빠른 때는 결코 없습니다.

안과 양지명 교수, BRIC ‘한빛사’ 선정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안과 양지명 교수가 BRIC(Biolog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에서 주관하는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한빛사)’에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은 중심성 장액맥락망막병증 환자의 진단 및 예후에 중요한 바이오마커를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되었으며 본 논문은 국제 저명 학술지인 ‘Journal of Nanobiotechnology’(영향력지수 10.2)에 게재됐다.

양지명 교수는 “이번 연구가 중심성 장액맥락망막병증의 병인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고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앱 활성화를 위한 홍보 부스 운영 확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5월 구축한 ‘환자용 모바일 앱’ 활성화를 위해 1층 로비에 모바일 앱 홍보부스를 확대 설치하고 환우 및 내원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홍보 부스에서는 병원을 찾는 환우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좀 더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설치 및 사용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14일에는 권범선 병원장, 고기환 사무국장, 레몬헬스케어 홍병진 대표, 닥터다이어리 송제윤 대표 등이 부스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모바일 앱은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운동·식사·수면 등의 개인건강데이터(PHR)를 기록하면 이를 병원정보시스템(HIS)과 연계하여 진료 시 활용할 수도 있고, 환자가 직접 병원 창구에 내원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앱을 통해 진료예약 및 결제, 처방전 약국 전송, 검사 결과 확인, 모바일 제 증명 발급 등 다양한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앞으로 모바일 앱의 장점과 편리함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23학년도 1학기 교직원 정년(명예)퇴임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17일 5층 대강당에서 2023학년도 1학기 교직원 정년(명예)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주인공인 소아청소년과 김희섭 교수, 보험심사팀 최해송 간호사, 외래간호팀 박현주 간호사는 그동안 노고를 담은 공로패와 축하케익을 받았고, 퇴임기념 영상을 보며 병원에서 마지막 추억의 시간을 가졌다. 채석래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축사에서 “비록 몸은 떠나지만 다른 곳에서 새 출발하는 인생 2막을 축하하고 앞으로 무탈하고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년(명예)퇴임식은 참석하지 못하는 교직원과 공유를 위해 유튜브 생중계도 시행했다.

